

경영관련 교육에서의 학부제 도입의

배경과 현황

송 계 충*

.....

대학에서의 지나친 학과세분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화·특성화를 위한 학부제 도입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1996년 평가 인정한 경영관련 학과를 조사대상으로 할 때, 전국 44개 대학 중 36개 대학에서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8개 대학에서 학과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학부제를 실시한 36개 대학 중에도 20개대는 하나의 통합된 경영관련 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6개대는 2개 이상의 학부를 운영한다.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복수 전공제, 폭넓은 교양 및 인성 교육, 학생중심 교육 등의 장점을 갖는 학부제도 운영상의 선택 대안을 잘 이해하고 시행해야 그 타당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

1. 서언

우리 나라 대학에서 학부제의 필요성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교육부가 1988년부터 대학정원 조정지침을 마련하여 유사학과를 통폐합하도록 적극 권장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본격적인 학부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1994년도의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1994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는 131개 대학, 557개의 학과가 있었다. 이는 그 때부터 약 20년 전인 1975년에 72개 대학, 236개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준 셈이다.

당시 우리 대학들은 건학 이념이나 규모, 또는 특성화 전략과는 무관하게 소위 명문대학들의 학과설치를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세분화된 학과 중심의 획일적 대학운영을 일삼아 왔다. 즉 많은 대학들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교육과정 면에서 너무 유사하여, 교육의 다양화와

*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학과간의 벽을 없앨 수 있는 학부제가 다중 전공과 복합 학문의 길을 열게 함으로써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학부제가 도입되면, 관련 학문의 통합운영을 통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가 촉진되어 교수들간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학생들은 최소전공인정 학점제가 도입됨으로써 강의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고 취업이 용이해지며, 특히 신입생의 경우에는 보다 자율적인 전공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육부는 학부제의 도입을 계기로 학사(직업) 중심 대학과 대학원(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특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나라 대학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학부제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수단을 이용한 암묵적 강요 등으로 인해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을 무시한 실적위주의 획일적 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그간의 학부제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경영관련 교육에서의 도입 현황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구체적으로 교육개혁과 학부제, 학과제의 문제점과 학부제의 특성, 학부제와 대학원의 연결 모형, 경영관련 교육에서의 학부제 도입 현황과 타당성, 그리고 학부제 도입에 따른 선택 대안 분석의 순서로 전개된다.

2. 교육개혁과 학부제의 추진

김영삼 행정부는 출범한지 2년이 지난 1994년 12월 우리 나라를 WTO 창설회원국으로 가입시켰고, 또한 1996년의 OECD 가입을 앞둔 현실을 고려하여, 1994년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해로 정한 바 있다. 교육개혁은 실제로 2000년의 교육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응할 우리 나라 대학들의 절대적 과제로 인식되어,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제1기 위원장: 이석희; 제2기 위원장: 김종서)가 구성되어 교육부의 일련의 정책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교육부가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 인력부문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①공고 교육과정의 2 + 1 제도의 도입, ②97년까지 인문고 대 실업고를 50 : 50으로 개편, ③대기업 위탁교육 강화, 직업교육의 강화, ④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사로 활용, ⑤우수한 직업훈련원의 기능대학으로의 개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①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영어 조기 교육, ②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국·영·수 학원과의 허용, ③월

반·속진제의 도입, ④컴퓨터교육의 확대, ⑤경쟁적 고교입시의 부활, ⑥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치·운영, ⑦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의 도입, ⑧학·연·산의 협동체제 구축, ⑨중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 육성, ⑩교수업적평가제의 도입이 제시되었다.

이어 1995년 4월 27일에 김영삼 대통령은 <교육의 세계화> 를 위한 “대통령의 신교육 이상”을 발표하였다. 그 강조점은 21세기의 일류 국가가 되려면 사교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고, 근대화와 산업화 시대의 교육철학과 교육원리는 이제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관과 교육원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의 세계화> 를 위한 10대 실천 과제로는 ①평생학습사회 구축, ②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③초·중등 교육의 자율운영, ④인성과 창의 위주의 교과, ⑤국민고통 없는 입시, ⑥직업 및 기술교육 확립, ⑦교육자 평가제 확립, ⑧품위 있고 유능한 교사의 확보, ⑨정보화 교육의 틀 마련, ⑩교육행정 및 재정의 혁신 등이 제시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의 세계화> 10대 실천 과제는 1995년 5월 31일에 발표된 제 1 차 교육개혁안(통칭 5.31 교육개혁안)에서 그 세부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5.31 교육개혁안을 만들어낸 교육개혁위원회는 그후 제2차(96년2월), 제3차(96년8월), 제4차(97년6월) 교육개혁안을 만들어내었다. 그후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 1998년 5월 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제1기 위원장: 김덕중)가 새로 발족되어 국민정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99년3월)을 발표하게 된다.

김영삼 행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5.31 교육개혁안의 성안을 위하여 그간 수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1994년 11월 공청회에서는 「대학의 다양화 및 자율화」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대학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형은 학사 양성을 위해 학사과정에서는 학생들을 학과에 소속시키지 않은 채 자유롭게 수강하도록 하고 대학원과정에서 특정 연구에 전념케 하는 학문연구중심 대학(예: 미국의 University College)이다.

둘째는 학사과정에서는 폭넓은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학생의 선택에 의해 학과에 소속시켜 특정 학문분야를 전공할 수 있게 하며 졸업이후 전문대학원(법학·신학 등)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교양중심 대학이다.

셋째는 사회 각 영역의 전문가에 필요한 실제 현장과 연계된 고등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중심 대학이다.

넷째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P·P·E(철학·정치학·경제학) 와 같이 사회 지도자 및 관리자에 필요한 폭넓은 지식을 복합 학문적으로 구성, 교육하는 관리자중심 대학이다.

또한 교육부의 의뢰로 대학학사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온 「대학학사제도 개선연구회」(책임자: 전성연 고려대 교수·교육학)에서도 1994년 11월에 공청회를 열어 졸업 필수학점을 120 내지 130 학점 정도로 낮추되, 학과·계열·단과대별 특성에 따라 대학이 스스로 차등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졸업 필수학점 중 30%를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교양학점의 배점기

준을 폐지, 교양교육 과정의 이수규정에 관해서도 대학에 대폭 일임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교육개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에서는 1994년 9월에 이미 전국 대학 교무처장 회의에서 학과통합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동년 10월 각 대학에 「학과통합으로의 정책전환 추진계획」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정부의 대학지원 정책은 학과통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며 학과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법령·제도상의 규제를 개정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었다.

위의 「학과통합으로의 정책전환 추진계획」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학과통합 세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학의 학과 통폐합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대학의 건학 이념과 지역·산업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학원 중심대학과 학사과정 중심대학으로 특성화 발전을 지향한다.

둘째, 학사과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학의 특성에 따라 학부(전공) 또는 학과 등의 다양한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다.

- ① 학사과정은 폭넓은 교양과 다양한 학문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보편적인 학과 위주로 통폐합 운영토록 하고, 세분화된 학과는 대학원 수준에서 전공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통폐합시 석사과정 우선 인정)
- ② 학부로 통합하는 경우(예: 학부-전공)에도 행정조직상 보직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공담당 책임교수는 보직이 아님)
- ③ 학과를 존치하는 대학의 경우에도 학부, 학과군, 또는 계열별로 모집하여 졸업 때까지 모집단위로 운영하고, 교과과정의 통합 운영, 학생의 전과 허용 등 과감한 학사쇄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④ 향후 대학정원 자율화가 추진된 이후에도 학과 신설은 가능한 한 보편적인 학과로 한정하고, 유사 학과 신설은 억제한다.
- ⑤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또는 학과의 성격상 통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다.

셋째, 학과 통합은 대학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모형은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별로 학사조직 합리화를 위한 연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부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5년 2월 28일자로 관련법령을 일부 개정하여 당시의 교육법시행령(현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던 대학의 학사제도를 대학의 실정에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의 교육법(현 고등교육법) 제109조의 2가 1995년 12월에 신설되어 1항에는 “대학에 학사학위의 과정으로 학과 또는 학부를 두되, 학부에는 학과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또한 2항에는 “학부에는 2이상의 전공분야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

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각 대학에서는 교육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 강화의 한 방안으로서 학과통합과 학부제의 실시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교육부는 이 방향으로 학제를 개편한 대학만을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대상으로 고려함으로써 늘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1995년도에는 11개 대학에서 45개 학과가 21개로 통폐합되었고, 1996년도에는 60개 대학에서 745개 학과가 246개 학과로 통폐합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제도적으로 볼 때도 1998년 3월 새로 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665호) 제9조2항에서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고 하였고, 동 시행령 제9조3항에서는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제28조2항에서는 학사과정의 신입생 「모집단위」는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한다고 하여, 최근 대학의 모든 교육정책은 제도적으로 학과와 학부의 병행체제로 재편성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내려보낸 「200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지침」에 의하면, 지방 사립대학은 학사과정 신입생 「모집단위」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자율조정권을 부여하였다.

다만 수도권 소재대학과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분야에 대하여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정원 공모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모집단위」로서의 학과 신설은 가능한 억제되며, 기존 관련 학과나 학부에서 전공 수준으로 개설할 경우에 증원이 허용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학부제 추진정책에 호응하여 현재 우리 나라의 15개 국립대학들의 경우에 이미 37%의 전공들이 학부에 소속되어 있고, 특히 학생수가 15,000명 이상이 되는 6개의 대규모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44.1%의 전공들이 학부에 소속되게 되었다.

3. 학과제의 문제점과 학부제의 특성

1) 학과제의 문제점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학관련 법령과 제도가 유일하게 학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학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져 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지나친 세분화를 부추긴 원인으로 신양균(1996)은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학과의 세분화가 대학의 재정이나 학생 정원의 확보, 그리고 종합대학 승격 수단으

로 이용되어온 면이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종합대학 인가 조건으로서의 일정 수의 학과 설치의 필요성과 학생정원 증원을 통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이 무리한 학과 세분화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신설 학과의 교수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또한 학과장 보직수당 지급제도 때문에 학과의 세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없지 않다.

셋째, 일반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증가와 정부의 산업발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인력수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해당 분야의 학과 신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

그 외에도, 학과의 세분화는 교수들의 학문영역 다툼과 갈등되는 인간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학과제 하에서 교수들은 자신의 학문 영역을 보다 확실히 보존하기 위하여, 또는 갈등을 빚는 동료와의 단절을 위하여 세부학과를 신설하여 분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야기된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과제에서의 문제점을 백종현(1996)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학과의 지나친 세분화는 학과 교과과정간의 장벽을 만들고, 학점교환, 전과 등의 시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신입생들의 입학 후의 선택의 폭을 좁혀 놓았다. 특히 고등학교의 성적에 맞추어 세부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 후 적성개발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둘째, 재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세분화된 학과 교육은 폭넓은 기초지식보다는 한정된 분야의 편협한 전공지식에 집중되어 사회 현장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교육을 학사과정에서 받아야 했다.

셋째, 교육과정의 설계에서 학과끼리의 배타적 과목 쟁탈전 때문에 같은 내용의 과목을 다른 명칭으로 설정·강의하여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대학에 재정적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유사학과들이 시설과 기자재에 대해 제각기 투자하는 중복투자 현상이 빚어짐으로써, 대학전체로서는 편중된 투자, 나아가서는 시설과 기자재의 활용도 수준이 매우 낮았다. 같은 이유에서 교수 확보에서도 편중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다섯째,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과제에서는 모든 학과가 대학 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운영되었다. 이는 경쟁원리에 의한 특성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또한 유필무(1998)는 학과의 지나친 세분화는 전공교수들간의 '칸막이 현상'을 불러와 연구 및 교육 능력의 경직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학과제 하에서는 학과를 초월한 강의나 연구와 관련된 협력체제, 그리고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등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학과의 지나친 세분화로 인하여 학과별, 전공 분야별로 소규모 단위를 이룬

교수들이 각자 교양과목, 개론, 기초적인 전공필수 과목 등을 나누어 맡고 나면, 오히려 세부적인 전공과목을 강의할 여지가 없어지고 만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위 잡화점식 대학구조가 교수들을 ‘개론 선생’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과의 신설이 해당 분야의 대학교육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한시적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공통화되어, 그 학과의 특성과 존립기반이 없어져버린 경우도 있었다.

2) 학부제의 특성

위에서와 같은 학사과정에서의 지나친 학과 세분화의 문제점들이 교육의 질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렸고, 궁극적으로는 세계화 시대의 교육 경쟁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최근에 학부제를 통한 제도적 및 실질적 교육내용의 개혁이 교육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부제의 특성을 백종현(1996), 신양균(1996), 그리고 김형철(1998)의 논거에 의해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제는 학생 중심의 열린교육을 지향한다. 과거 학과별 모집제에서 보여준 학과 소속 교수 중심의 교육이 학부제에서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게 된다.

현 제도상으로 대학 신입생은 「모집단위」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전공에 대한 탐색을 한 후 복수의 학과 중 자신의 학과를 선택하거나, 학부의 여러 전공 중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즉 학부제에서는 학생들이 폭넓게 전공관련 교육에 노출됨으로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접하게 된다. 둘째, 학부제에서는 유사학과가 통합되고, 학부, 계열, 학과군, 또는 대학 내의 복수 전공이 인정됨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되고, 전공 선택의 융통성도 훨씬 높아진다.

이러한 복수 전공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 최소전공인정 학점을 졸업이수 학점인 140학점의 1/4 내지 1/6인 35 내지 23 학점 정도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학부제에서는 폭넓은 교양과 다양한 전공지식을 갖춘 다기능적 전문 인력이 양성된다

학부제는 유사학과의 단순한 통합에 그치지 않고, 관련 학문분야를 하나의 모집단위로 묶어, 학문 상호간의 교류를 보다 긴밀히 하여 시너지(synergy) 효과를 조장하며,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건전한 가치와 철학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셋째, 학사과정에서의 학부제는 대학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 지식과 충실한 교양을 습득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탐색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면서, 대학원에서 전공을 더 깊이 있게 다룰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과제에서 오는 연구 자원과 인력의 중복에서 오는 낭비를 대학원 프로그램을 위한 집중적 투자로 대체한다면,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즉 학과제에서 따로따로 개설했던 학과별 기초과목이나 전공필수과목 등을 통합된 학부 차원에서 개설하게 됨으로써 교수들의 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감소된 강의 부담은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개별적 연구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학부제는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여 대학간의 역할 분담을 이룰 수 있다. 과거 우리 대학들은 개설 학과 및 학생 수의 면에서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 유사학과를 비슷한 규모로 유지하게 되었고, 그 교과과정도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고 소위 일류 대학의 것을 복사함으로써 오직 한 가지 유형으로만 수렴되어 왔다.

그러나 학부제 하에서는 유동적인 학사과정에 의해 시대적 요청과 대학에 맞는 특성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특정 대학의 위상이 차별화 되고 대학간의 역할 분담도 이루어질 수 있다.

4. 학부제와 대학원의 연계 모형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31 교육개혁안에 의하면 대학은 학문연구중심 대학, 교양중심 대학, 전문가중심 대학, 그리고 관리자중심 대학의 네 가지 모형 중 하나로 특성화 되도록 기대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거의 모든 대학이 이러한 네 가지 모형의 기능을 모두 다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양균(1996)은 장기적으로 대학들이 역할분담을 통하여 이러한 모형의 기능을 분업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네 가지 기능 모두의 수행은 워낙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특성이라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나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 요청만으로 이를 쉽게 바꾸어 놓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또한 어떤 대학 모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학사운영 방법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학부제가 학사과정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학의 네 가지 모형에 비추어 볼 때, 학부제는 교양중심 대학 모형에 가장 적절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양중심 대학에서의 학부제는 학생들에게 학사과정에서 폭넓은 교양과 다양한 전공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학부제가 적절한 모형은 학문연구중심 대학 모형이다. 학문연구중심 대학에서의 학부제는 특정 연구분야에 종사할 연구자를 폭넓은 교양과 다양한 전공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제는 그 특성상 개별 전공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백종현,1996; 신양균,1996).

그리고 관리자중심이나 전문가중심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과거의 학과제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학과가 세분화되어 원래의 교육목적 달성에 어긋나면 그 세분화된 학과들을 통합하여 학부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는 학과제에서만 그 교육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그대로 학과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특성화 모형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특정 모형에서의 학부제와 대학원과의 연결관계이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665호) 제21조에 의하면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된다.

위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들 수 있다.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서 석사학위 과정을 들 수 있으며, 다만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을 들 수 있다.

한편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서 석사학위 과정만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에서는 2000년부터 특수대학원에서도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에는 212개의 일반대학원과 8개의 전문대학원, 그리고 443개의 특수대학원이 설립되어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대학의 네 가지 모형에 기반한 학부제와 세 개의 대학원과의 관계, 그리고 해당 학문분야와의 연결관계를 다음의 [그림 1]에서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해 본다.

이 모형에서 대학의 신입생은 두 가지 길을 가게 된다. 첫째의 길은 학문영역별 계열 또는 학부의 모집단위로 입학하여 1-2년간 교양중심 교과과정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은 학사과정 전반 1-2년간 계열 또는 학부를 뛰어넘는 폭넓은 교양 및 전공 탐색 공부를 한 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4년제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된다.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4학년 졸업 후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에 따라 일반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문연구중심 교과과정에 따라 전공을 마친 학생은 곧장 일반대학원에 진학하게 되고, 관리자중심 교과과정에 따라 전공을 마친 학생은 졸업 후 대부분 실무에 얼마간 종사한 후 특수대학원에서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곧장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는 길도 열려 있다.

(입학)	1	교양중심 교과과정(계열/학부) 기초·응용과학, 공학, 인문·사회과학, 예술		
학사	2	전문가 중심 교과과정 (학과) 공학 사회과학	관리자 중심 교과과정(학부)	학문연구 중심 교과과정(학부)
	3			
(졸업)	4			
석사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박사과정		

[그림 1] 학부제와 대학원과의 연계 모형

사회의 지도자 내지는 관리자를 길러내는 관리자중심 교과과정에 따르는 학문 분야로는 경영일반, 경제일반, 행정일반, 기술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은 행정, 의무, 기술 관련 각종 국가고시를 통하여 사회지도자로 배출되기도 한다.

둘째의 길은 과거의 학과제에서와 같이 4년제 특정 학과를 모집단위로 하여 입학하여 전문가중심의 '구조화된'(structured) 교과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얼마간 실무에 근무한 후 특수대학원에서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실무적 성격상 일반대학원에의 진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전문가중심의 '구조화된' 학과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예로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배출을 주된 교육목적이라고 표방하는 경우의 회계학 분야나 건축사 배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우의 건축학 분야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들 전문직 인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과제를 그대로 존립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 전문직에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특정교과목들을 교과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성과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학부제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5. 경영관련 교육에서의 학부제 현황과 타당성

우리 나라 대학에서의 경영학 교육은 해방 전후의 '상학' 교육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에서 1955년 최초로 「경영학과」라는 명칭의 학과가 창설됨으로써 경영학 교육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기틀이 제공됐다.

그후 1960년대의 미국경영학의 수입·정착과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급속한 경제개발에 힘입어 경영학 교육은 그 교육대상과 학문영역이 급속히 확대되었고, 기존의 경영학과는 회계학과, 무역학과, 관광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등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1995년 1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간한 「경영·무역·회계 관련학과 평가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대교협의 학사과정 평가인정에 참여한 전국 경영관련 학과는 94개 대학의 207개 학과였다. 207개 학과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경영학과 88개, 회계학과 47개, 무역학과 45개, 관광경영학과 11개, 경영정보학과 7개, 호텔경영학과 및 수산경영학과 각 2개, 항공경영학과, 해운경영학과, 보험경영학과, 경영·회계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각 1개가 참여하였다.

이러한 대교협의 평가 결과, 평가대상인 전국 94개 대학 중 상위 40%에 드는 41개 대학이 경영계열 학사과정의 우수 대학으로 인정받았고, 전국 71개 대학원 중 역시 40%에 드는 29개교가 경영계열의 우수 대학원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대교협의 평가인정 작업에 대하여 평가위원간 평가의 신뢰도 문제 등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송계충, 1996),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경영관련 학과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 학부제의 현황

본고에서는 위의 우수 학사과정과 우수 대학원 평가인정을 둘 다 받거나(25개 대학) 어느 하나만이라도 받은(19개 대학) 총 44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위 및 학부제 도입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이 조사에서는 1999년 4월-5월중에 모든 조사대상 대학들의 웹 주소에 들어가 1999학년도 입시관련 정보 및 관련 학과나 학부의 홈페이지를 검색함으로써 모집단위와 교과과정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웹 주소를 이용한 조사결과, 경영관련 학과들의 신입생 「모집단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I, II, III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제 I 유형은 다양한 경영관련 분야를 하나의 학부제로 통합하여 이 하나의 학부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들로서 20개 대학이 이 유형에 해당되었다. (<표 1> 참조).

제 II 유형은 학부제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경영관련 분야를 두 개 이상의 학부로 세분화시켜 이러한 복수 학부단위에서 제각기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으로 구성되는데 16개 대학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표 2> 참조).

제 III 유형은 학부제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여전히 학과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거나 또

는 계열별 모집을 한 후 일정 기간 후에 학과를 선택하게 하는 대학으로서 학과 모집 4개, 계열별 모집 4개, 모두 8개 대학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표 3> 참조).

<표 1> 경영관련 분야의 학부단위(단일) 모집 대학 현황(제 1 유형)

연번	대학교명	단과대명	모집 단위 (학부/단일)	세부 전공	평가인정 학사과정	평가인정 대학원
1	전남대	경영대	경영학부	-	경영, 무역	경영, 회계
2	서강대	경영대	경영학부	-	경영, 무역	경영, 무역
3	아주대	경영대	경영학부	-	경영	경영
4	한양대 (서울)	상경대	경영학부	-	경영, 회계	경영, 회계
5	숙명여대	경상대	경영학부	-	경영, 무역	경영
6	원광대	경상대	경영학부	-	-	경영
7	한양대 (안산)	경상대	경영학부	-	경영, 보험경영	-
8	성균관대	-	경영학부	경영, 산업심리	경영, 회계	경영, 회계
9	이화여대	경영대	경영학부	경영, 비서학	경영	경영
10	중앙대 (서울)	경영대	경영학부	경영, 회계, 무역	경영, 회계 무역	경영, 회계 무역
11	홍익대	경영대	경영학부	경영, 무역	경영, 무역	경영, 무역
12	울산대	경영대	경영학부	경영, 회계, 경영정보	경영	-
13	키움학대	-	경영학부	경영, 회계	경영, 회계	-
14	순천향대	사회 과학대	경영학부	경영, 관광경영, 무역	무역	-
15	한림대	사회 과학대	경영학부	경영, 재무금융	경영	-
16	수원대	인문사회과 학대	경상학부	경영, 무역, 회계, 호텔관광경영, 경제	경영, 회계	-
17	대전대	법경대	경상학부	경영, 무역, 회계, 산업심리	경영	-
18	중앙대 (안성)	사회 과학대	상경학부	경영, 회계, 무역	경영, 회계 무역	-
19	연세대 (원주)	경법대	경법학부	경영, 경영정보, 경제	경영	-
20	경희대 (수원)	-	국제·경영학부	국제경영 세무·기업회계 기업경영·벤처비즈니스 국제관계, 지역학	경영, 회계 무역	-

<표 2> 경영 관련분야의 학부단위(복수) 모집 대학 현황 (<제 II 유형>)

연번	대학교명	단과대명	모집 단위 (학부/복수)	세부 전공	평가인정 학사교정	평가인정 대학원
1	경북대	경상대	경영학부 경제통상학부	경영, 회계, 상업 무역학, 경제학	경영	경영
2	부산대	상과대	경영학부 무역·국제학부	경영, 회계 무역, 국제	경영, 회계	경영, 회계
3	전북대	상과대	경영학부 경제학부	- 무역, 경제	경영, 회계 무역	경영, 무역
4	강원대	경영대	경영관광학부 경제무역학부	경영, 회계, 관광경영 무역, 경제	경영, 회계 관광, 무역	-
5	부경대 (부산수 산대)	경영대	경영학부 국제통상학부	경영, 경영정보 국제통상, 국제물류	경영 수산경영	-
6	충북대	경영대	경영학부 국제경영정보시스템학 부	- 국제경영, 경영정보	-	경영, 회계 무역
7	영남대	상경대	경영학부 통상·경제학부	- 국제통상, 경제학	경영, 무역	경영, 무역
8	인하대	경상대	경영학부 국제통상학부	-	경영, 회계	경영
9	대구대	경상대	경영·관광학부 통상·회계학부	경영, 관광경영, 관광통역 무역, 회계정보	경영, 회계 무역	-
10	경기대	경상대	경영학부	경영, 회계, 무역	회계, 무역	회계, 무역
		관광대	관광학부	관광경영, 관광개발, 호텔 경영, 조리, 이벤트	관광경영 호텔경영	관광경영
11	계명대	경영대	경영학부	경영, 회계 관광경영 경영정보	경영, 회계 관광경영 경영정보	경영, 회계
		국제학· 통상학대학	통상학부 국제학부	통상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	-
12	경희대 (서울)	정경대	경영학부 경제통상학부 (의료경영학과)	경영, 회계 국제통상, 경제	경영, 회계 무역	경영, 회계 무역
		호텔 관광대	관광학부	호텔경영, 관광경영, 관광영어통역, 관광일어통역	-	-
13	송실대	경상대	경영학부 경제·국제통상학부 중소기업학부	경영, 회계 국제학, 경제학 중소기업, 벤처창업	경영, 회계 무역	경영, 회계 무역
14	동국대 (서울)	경상대	경영학부 회계학부 경제통상학부	경영, 정보관리, 광고 회계, 세무회계 국제통상, 경제	경영 회계 무역	경영 회계 무역
15	동아대	경영대	경영학부 국제관광통상학부 경영정보과학부	- 관광경영, 무역, 국제관광 정보통계, 경영정보	경영, 회계 경영정보	관광경영
16	국민대	경상대	경영학부 정보관리학부 경제학부	경영, 회계정보, 국제경영 경영정보, 정보시스템 국제통상학, 경제학	경영	경영

〈표 3〉 경영관련학과의 학과/계열 단위 모집 대학 현황(〈제 III 유형〉)

연번	대학교명	단과대명	모집 단위 (학과·계열)	세부전공	평가인정 학사과정	평가인정 대학원
1	서울대	경영대	경영학과	-	경영	경영
2	한국항공대	-	경영학과	-	항공경영	-
3	고려대	경영대	경영학과	-	경영	경영
4	건국대(서울)	경영대	경영학과	-	경영, 무역	-
5	연세대 (서울)	상경대	상경계열 - 경영학과 - 경제학과, 응용통계학과	-	경영	경영
6	충남대	경상대	경상계열 -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 경제학과	-	-	경영, 회계 무역
7	명지대	경상대	경상계열 - 경영학과, 무역학과 - 경제학과 (지식정보학부)	- 지식경영 정보경제	경영, 무역	경영, 무역
8	외국어대 (용인)	경상대	경상계열 - 경영정보학과, 무역학과 - 경제학과		경영정보	-

본고에서 조사대상이 된 44개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되어 분석된 몇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영관련 분야의 모집단위는 학부가 36개, 학과 4개, 그리고 계열별이 4개 대학이 있었다. 그러므로 44개 대학중 학부제를 도입한 대학은 36개(〈유형 I〉 + 〈유형 II〉)로서 82%의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만약 경영관련 분야의 통합적 성격의 단일 학과 모집을 하고 있는 4개 대학(서울대, 한국항공대, 고려대, 건국대-서울)을 학부제와 유사하다고 보아 학부제에 포함시킨다면 광의의 학부제 도입 대학은 40개로서 91%의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게 된다.

둘째, 경영관련 분야를 하나의 학부로 통합한 대학(〈유형 I〉)은 실제적인 학부제 실시 대학 36개 중 절반을 넘는 20개(55%)이며, 나머지 16개 대학(〈유형 II〉)은 두 개의 학부로 통합한 대학 10개(28%)와 세 개의 학부로 통합한 대학 6개(17%)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하여 실제로 학부제를 도입한 36개 대학에서 총 58개(= 20개×1학부 + 10개×2학부 + 6개×3학부)의 학부가 만들어졌다.

셋째, 경영관련 분야를 하나의 학부로 통합한 20개 대학(〈유형 I〉)의 경우에 그 학부의 명칭이 '경영학부'가 된 것이 15개로서 7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경상학부(또는 상경학부)

3개, 경법학부 1개, 국제·경영학부 1개로 되어 있다.

학부제의 근본 취지로 볼 때 경영관련 분야는 <유형 I> 에서처럼 하나의 학부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학부제 실시 36개 대학 중 16개의 대학(45%)에서 두 개 이상의 학부가 만들어진 것은 대부분 기존의 무역학과의 학문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역학과는 무역상무를 중심으로 여기에 국제경영학, 국제경제학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왔는데, 최근 들어 국제통상 문제와 국제지역경제 문제까지 연구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대교협, 1995).

이러한 무역학과의 성격상, 국제경영학 전공자는 무역학을 하나의 통합된 경영학부에 포함시키는 것을 호의적으로 볼 것이고, 국제경제학 전공자는 무역학을 경제학의 일부로 볼 것이다. 반면에 무역상무나 국제통상 내지는 국제지역경제 전공자는 고유의 독립영역으로서의 무역학을 주장할 것이다.

넷째, <유형 I>과 <유형 II>를 통털어 총 58개의 학부 명칭 중 '경영학부'라 명명된 학부는 29개로 꼭 절반(50%)에 해당되며, 그 외 '관광학부' 2개, '회계학부' 1개, '중소기업학부' 1개가 있으며, 나머지 25개(43%) 학부 명칭은 '국제관광통상학부'나 '국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처럼 복합적인 명칭으로 되어있다.

위의 25개 학부의 복합 명칭에서 중복해서 사용되는 용어는 '통상'과 '경제'가 각각 10개로 가장 많았고, '국제'가 8개, '무역' 3개, '관광' 3개, '정보' 2개, '회계' 1개, '법' 1개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여기에서도 무역학의 학문적 성격 때문에 학부의 명칭에서 통상, 경제, 국제, 무역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섯째, 대학 내에서 경영관련 학부의 조직도상의 위치와 관련하여 기존의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학부제를 실시한 36개 대학 중 33개 대학이고, 단과대학이 아닌 대학 본부에 바로 소속된 경우가 3개 대학(성균관대, 카톨릭대, 경희대-수원)의 경우이다.

기존의 단과대학에 학부가 소속된 33개의 대학에는 총 55개의 학부가 있는데, 이들이 소속한 단과대학의 명칭은 경영대학과 경상대학(또는 상경대학)이 가장 많아서 각각 12개, 그 다음이 사회과학대학 3개, 상과대학 2개, 법경대학(또는 경법대학) 2개, 그리고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제학·통상학대학, 관광대학, 호텔관광대학, 정경대학이 각각 1개씩이었다.

학부와 기존의 단과대학간의 관계를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단과대학의 명칭 대신 이름만 학부로 개칭하는 것은 현재의 단과대학 규모보다 작은 학부들의 숫자만 늘어나게 되고, 한편 기존의 단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학부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옥상옥 또는 중복관리의 문제가 생겨 조직이 방만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학부제는 원래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을 위하여 단과대학내, 혹은 단과대학간 유사학과의 통폐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단과대학을 통합 축소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연관 학과들을 통폐합하여 그 수를 축소해 나

같은 경우에만 학부제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된다.

다음에서는 조사 대상이 된 44개교의 경영관련 분야의 학사운영 단위와 세분화 수준에 따른 2×2 매트릭스를 만들어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표 4〉 참조).

〈표 4〉 경영관련 분야의 학사운영 단위 및 세분화 수준에 따른 대학 구분

	통합된 학사 운영	세분화된 학사 운영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경영학과)* · 연세대(경영학과)* · 고려대(경영학과)* · 건국대(경영학과) · 한국항공대(경영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대(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 명지대(경영학과, 무역학과)* · 외국어대-용인(경영정보학과, 무역학과)
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대 : 경영학부/1 · 아주대* : 경영학부/1 · 서강대* : 경영학부/1 · 원광대 : 경영학부/1 · 숙명여대 : 경영학부/1 · 한양대(서울)* : 경영학부/1 · 한양대(안산) : 경영학부/1 · 홍익대* : 경영학부/2 · 한림대 : 경영학부/2 · 카톨릭대 : 경영학부/2 · 이화여대* : 경영학부/2 · 울산대 : 경영학부/3 · 성균관대* : 경영학부/3 · 순천향대 : 경영학부/3 · 중앙대(서울)* : 경영학부/3 · 중앙대(안성) : 상경학부/3 · 연세대(원주) : 경법학부/3 · 대전대* : 경상학부/4 · 경희대(수원)* : 국제·경영학부/5 · 수원대 : 경상학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하대 : 경영학부/1 경제통상학부/1 · 영남대* : 경영학부/1 통상·경제학부/2 · 전북대 : 경영학부/1 경제학부/2 · 충북대 : 경영학부/1 국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2 · 부산대 : 경영학부/2 무역국제학부/2 · 부경대 : 경영학부/2 국제통상학부/2 · 경북대 : 경영학부/3 경제통상학부/2 · 강원대 : 경영관광학부/3 경제무역학부/2 · 대구대 : 경영관광학부/3 통상회계학부/2 · 경기대 : 경영학부/3 관광학부/5 · 동아대 : 경영학부/1 경영정보과학부/2 국제관광통상학부/3 · 송실대* : 경영학부/2 경제국제통상학부/2 중소기업학부/2 · 경희대(서울)* : 경영학부/2 경제통상학부/2 관광학부/4 · 동국대(서울)* : 경영학부/3 국제통상학부/2 회계학부/2 · 국민대 : 경영학부/3 정보관리학부/2 경제학부/2 · 계명대 : 경영학부/4 통상학부/1 국제학부/5

1) 학부명 뒤의 / 표시 다음의 숫자는 학부 내에 개설된 세부전공 수
 2) * = 대교협 평가인정에서 최우수 대학 평가인정(18개교)

첫째, 학부제를 실시한 7개의 국립대학 중 1개 대학(전남대)만 통합된 1개의 경영학부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6개 대학은 2개씩의 학부를 설치하였다. 반면에 사립대의 경우에는 학부제를 실시한 29개의 대학 중 19개 대학은 하나의 통합된 학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0개 대학만이 2개 이상의 학부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립대의 경우가 학부제 도입과 관련하여 사립대에 비하여 더 비효과적 결정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부제의 취지는 유사학과를 통폐합하여 학부를 만들고, 그 학부

내부에서 세부 전공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전공 선택의 자유와 교과과정의 유연성을 피하는 것인데도, 국립대에서는 경영관련 분야에서의 하나의 통합된 학부의 신설이 6 : 1로 어려웠던 반면에, 사립대는 19 : 10으로 용이했다.

둘째, 대교협 학사과정 평가인정에서는 두 등급으로 나누어 최우수대학 18개교, 우수 대학 23개교를 선정하였다. 이 중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18개교(〈표 4〉에서 * 표시) 중 학부제를 실시한 대학은 13개 대학이고, 이 중 70%에 해당하는 9개 대학이 하나의 통합된 학부를 신설하였으며, 4개 대학만이 2개 이상의 학부를 신설하였다.

반면에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나머지 26개교 중 23개 대학이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49%인 11개교만이 하나의 통합된 학부를 신설하였다.

즉 최우수 대학은 대다수인 70%가 하나의 통합된 학부를 만들었고, 우수대학은 과반수가 못되는 49%만이 하나로 통합된 학부를 만들어, 역시 최우수대학이 학부제의 취지에 숭신 수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 대학 내에서 경영관련 학부는 하나로 통합될수록, 그리고 학부 내 전공의 수는 다양할수록 학부제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셋째, 학부제를 실시하는 대학 36개교의 58개 학부 중, 76%에 해당하는 44개 학부는 둘 이상의 세부전공을 명시해 놓고 있으나, 나머지 24%에 해당하는 14개 학부는 학부내 전공을 세분화시키지 않았다. 둘 이상의 세부전공을 갖는 학부 중, 단지 두 개의 세부전공을 갖는 학부가 24개(54%)로 제일 많고, 세 개의 세부전공이 13개(30%), 네 개의 세부전공이 3개(7%), 다섯 개의 세부전공이 4개(9%) 이다.

여기에서 한 대학에서 경영관련 학부가 하나로 통합되었으면서 전공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부는 7개이며, 한 대학 내 경영관련 학부가 2개 이상이면서 전공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부가 역시 7개이다. 후자의 경우는 과거의 '학과'가 단순히 '학부'로 이름만 바뀌었거나 또는 아직도 학부간의 통합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넷째, 본고에서의 조사 대상인 44개 대학을 학부제 도입의 취지인 통합된 학부와 복수 전공 개설을 그 유효성 기준으로 보아 분류해 보면 높은 유효성 순서대로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 ① 통합된 학부 + 복수 전공 개설 : 13개 대학
- ② 통합된 학부 + 단수 전공 개설 : 7개 대학
- ③ 세분화된 학부 + 복수 전공 개설 : 11개 대학
- ④ 세분화된 학부 + 단수 전공 개설(경영학부) : 5개 대학
- ⑤ 통합된 학과 + 단수 전공 개설 : 5개 대학
- ⑥ 세분화된 학과 + 단수 전공 개설 : 3개 대학

다섯째, 세부전공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당해 대학 경영학부의 존립이유로서의 사명 내지는 비전과 교과과정의 설계의도에 대해 이해시키고, 또한 자신의 사회진출과 연계된 학생 스스로의 교과과정을 설계해 가도록 지도함으로써 소기의 학부제 목표를 달

성해 나가는 대학도 있을 수 있다. 전남대의 경영학부제가 바로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전남대는 학부제 교과과정에서, 총 67개의 전공 교과목에 대하여 ① 관리지향 과정, ② 전문가지향 과정, ③ 연구지향 과정의 세 가지 트랙(track)으로 구분하고 난이도에 따라 학년별 순차를 표시해 주고 있다.

관리지향 과정에서는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유능한 전반경영자를 양성하고, 전문가지향 과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격 소지자를 양성하며, 연구지향 과정에서는 연구 및 개발을 주도할 학자와 연구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과과정에 잘 정의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 세 개의 어떤 트랙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염두에 두고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대학에서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세 트랙의 교과과정을 항상 점검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남대의 이러한 세 개의 트랙은 본고의 [그림 1]의 학부제와 대학원과의 연계 모형에서 제시한 학문연구중심, 관리자 중심, 전문가 중심의 교과과정 모형과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2) 학부제의 타당성

앞의 현황 분석에서 경영관련 학과에서의 학부제 도입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선 교육부의 행·재정적 유인책, 과도하게 세분화된 학과제에서 오는 경직적 교과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교수들의 자각, 그리고 경영학의 통합적 성격의 재인식과 전략적 차별화의 필요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일부 후발 또는 소규모 대학들이 경영대학원 석사과정(MBA)의 교육에서 혁신적 교육방법을 동원하여 전통적인 명문대학들을 밀어내고 있는데, 그 비법은 경영 문제의 통합적 접근이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안길상, 1998). 즉 그 동안 인사, 재무, 생산, 마케팅 등 기능별로 구분해 집중 교육을 실시한 과거의 명문대학 보다는 이러한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목을 개발하여 교육한 후발 대학들이 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영관리학회(Academy of Management)의 슬로컴(J. Slocum) 회장도 벌써 15년 전인 1984년 연차 총회 개막 연설에서 경영 교육의 세 가지 방향을 지적해 주고 있다.

첫째, 경영 교육은 학생들을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들은 예술과 과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교과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이런 교과과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업, 제품, 지역, 국가, 문화 등과 관련된 고도로 복합적이고 급변하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

둘째, 학생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지식의 포트폴리오”(Portfolio of Knowledge)를 소유

한 교수요원을 개발해야 한다. 이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지성적인 호기심과 현실세계 실용주의의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한다.

셋째, 경영학 교수들과 경영대학들은 기업체 내부 경영자개발 프로그램과 더 많이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분야에서 교수와 기업이 잘 협력하면 효과적 평생교육이 활성화된다. 결국 경영교육은 학습의 연속이고 다양한 학문(multidisciplinary)에 기초해야 한다.

리빙스톤(Livingston, 1971) 또한 고도의 경영 교육을 받은 경영자가 사업에 실패한 이유는 그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을 학교 공식교육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문제해결에 필요한 분석 능력(analytical skill)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인지 능력(perceptual skill)이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경영관련 분야의 학과제(department) 교과과정이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만들어 낸다면, 앞으로의 학부제(faculty 또는 integrated department) 교과과정은 제너럴리스트(generalist) 혹은 제너럴 스페셜리스트(general specialist)를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파이낸셜 타임스, 1997).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란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경영문제 전반을 종합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10여 년 전 한국경영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연구발표회에서 신유근(1987)도 경영학 연구에서의 기능별 전문성, 대상별 통합성, 개인별 독자성의 추구를 주장한 바 있다.

또 한편으로 학부제는 대학의 특성화에 기초한 전략적 차별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경영 교육의 특성화는 경영 교육목표의 정립과 관계된다.

1995년도 대교협이 경영관련 학과 평가결과를 보면, 교육목표가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88개 평가 대상 경영학과 중 44개 학과, 13개의 기타 경영관련 학과(항공, 수산, 보험경영 등) 중 7개 학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과들이 아직 사회의 요구나 환경변화에 적합한 교육목표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대교협, 1995, p.39).

경영교육의 목표가 정립되지 못한 대학에서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경영관련 교육의 목표가 장래의 경영자를 양성한다고 막연하게 함축되고 있을 뿐, 배출되는 인재의 질적 수준은 교수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목표의 정립은 어디까지나 학생과 산업의 필요에 의존한다고 보아야 하나,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황일청, 1987).

- ①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른 차이
- ② 학생의 지능수준의 차이에 따른 차별화
- ③ 대학의 교육대상의 차이에 따른 차별화
- ④ 대학의 교육전략의 차이에 따른 차별화
- ⑤ 대학의 지리적 위치가 다름에 따른 차별화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를 배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의 전략적 차이에 따라서 회계학과의 교육목표는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공인회계사 배출 전략을 아주 중요한 우선 순위로 본다면 이 분야의 교육목표는, 회계전문가에 필요한 실제 현장과 연계된 고등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중심 대학 모형을 따르게 된다. 반대로 공인회계사 배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 분야의 교육목표는 사회 지도자 및 관리자에 필요한 폭넓은 지식을 복합 학문적으로 구성, 교육하는 관리자 중심 대학 모형이 적절하다.

또한 공인회계사와는 거리가 멀게 회계 분야의 연구자를 길러내려면, 학사과정에서는 학생들을 학과에 소속시키지 않은 채 자유롭게 수강하도록 하고 대학원과정에서 특정 연구에 전념케 하는 학문연구중심 대학 모형의 교육목표가 세워진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교육목표와 특성화 전략은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구조화되어 경직적인 학과제보다는 유연성과 개방성이 특징인 학부제에서 더 잘 수용될 수 있다.

6. 경영학부제 운영상의 선택 대안

최근 이대선, 강호상, 민재형, 임채운(1998)이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의 이과 및 문과 계열의 학생 2,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학부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리커트 척도(매우불만족1-불만족2-보통3-만족4-매우만족5)로 측정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고려대는 2.7, 서강대는 2.4, 연세대는 2.0 수준이었다.

현재 지향되고 있는 학부제가 일본식의 단과대학형 학부와 미국식의 교양학부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실적위주로 물리적인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서 전공별 인원제한, 전공선택, 수강신청 등의 학사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윤형원, 1999).

그리고 복수전공제로 인하여 학생들간의 불필요한 경쟁의식이 유발되고 학점 위주의 대학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생활공동체로서의 대학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신양균, 1996), 학과의 통폐합으로 종래 학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대학문화와 학생들간의 일체감이 사라진다는 걱정도 있다(김천기, 1996).

사립대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합리화보다는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학부제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즉 사학의 경우 보직축소와 통합강의를 통한 비용절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학부제 시행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행·재정 지원 역시 학부제를 실적위주로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또한 종래의 학과제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전공분야들이 상당 수 남아 있는 단위

대학에서, 학부제의 전면 실시를 전제로 하는 최소전공인정 학점제를 모든 학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학칙 개정을 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껍데기는 학부제이나 내용은 아직 학과제로 남아 있어 학부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신양균, 1996).

이와 같이 학부제가 잘못 시행되거나, 기존 대학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은 사실이나, 다음의 논쟁점들을 잘 검토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그 부작용보다 더 큰 효익을 얻어내는 정책적 성숙도가 필요하다.

1) 적정 졸업 소요학점

현행 졸업 소요학점인 140학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추가 1개 전공 당 10학점 이상 상향조정해 주는 방법이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전문가중심 교과과정에서는 상향 조정이 바람직하다.

국가고시나 자격 시험을 보는 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법학과 등에서는 종래에도 추가 학점을 부과하였다.

2) 교양과목의 학점 비율

학생들에게 복수전공 이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교양과목의 학점비율(140학점 기준시 30%인 42학점)을 대폭 낮추고, 대신에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전공과목과의 효율적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세대에서는 교양교육부를 신설하여 교양과목 책임 교수회의 및 교양교육위원회를 집행력을 갖는 기구로 전환하여 교양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다.

아주대 경영학부는 교양필수 학점을 37학점으로 정하고, 영어 12학점, 컴퓨터 4학점, 영역별 교양 12학점, 그리고 기초과목 9학점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초과목 9학점은 경영통계학, 계량경영, 경제원론1로 구성되어 있다.

전남대 경영학부에서는 교양학점을 24학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학점을 15학점까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교양과목은 8영역 중 4영역 이상에서 각 3학점 이상 이수하면 된다. 여기에 필수 개념은 없다.

국립대의 경우에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4항에 “대학에 교양과정부를 두되, 교양과정부의 교과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교양교육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3) 최소전공 이수학점

학부제에서는 학생들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의 이수, 단일전공의 심화, 그리고 조기졸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전공인정 학점을 최소화하는 최소전공 이수학점제가 도입된다.

일반적으로 최소전공 학점을 총 이수학점의 1/4 (25%) 정도로 한다. 그러므로 총 이수학점이 140학점인 경우 36학점이 최소전공 학점이 된다. 당초 입학한 학과나 학부의 전공을 제1전공으로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제2, 제3 전공은 학생의 선택에 맡긴다.

실제로 최소전공 학점이 전남대 경영학부의 경우는 33학점이고, 아주대 경영학부의 경우는 36학점이다. 서강대 경영학부의 경우 단일전공에 대하여는 45학점이 최소전공 학점이고, 복수전공 학생에 대하여는 36학점이 최소전공 학점이 된다.

최소전공인정제의 도입에 관련된 몇 가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기전공의 집중화 및 비인기 전공의 공동화 현상 대책수립 (수강생 제한 여부 및 방법)
- ② 교수의 과부족 심화에 따른 대책 (책임 시수의 완화, 폐강 기준의 완화)
- ③ 수강학생 확보를 위한 학점 인플레이 현상에 대한 대책 (체점 등 성적관리 엄격화, 성적상대평가제 도입 등)
- ④ 강의실 등 교육시설의 과부족 심화 (단기적으로 수강인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투자 필요, 수강생 제한 기준 및 수강신청 방법 설정 관계)
- ⑤ 교육효과성 문제 (인기강좌의 경우 수강생 과다로 교육효과 저하 가능성, 학과에 따라 수강생 제한 및 분반으로 대응)
- ⑥ 조기수강신청 제도 도입 (인기학과에서 대형강의가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분반 준비, 강사 확보, 강의실 준비 등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므로 수강신청은 전학기 초에 하되 변경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 ⑦ 강의계획서의 개선 (학생들의 전공선택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강의계획서를 상세히 작성)

4) 전공필수 과목의 축소

학부제에서는 전공과목을 가급적 필수보다는 선택 과목으로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과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공필수 과목을 대폭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대 경영학부에서는 최소전공인정 학점 36학점 중에서 18학점을 전공필수로 정하고 있는데, 그 과목은 마케팅관리, 재무관리, 조직행위론, 회계학원론, 생산관리, 경제원론2이다.

서강대 경영학부에서는 최소전공인정 학점(단일 전공 45학점, 복수전공 36학점) 중에서 15학점을 절대적 필수로 하는데,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론, 재무관리, 관리회계, 마케팅원론의 5과목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부분적 필수로서 3과목 이상을 조직행동론, 경영정보시스템, 경영과학, 국제경영론, 무역실무, 보험학원론의 6과목 중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전남대 경영학부에서는 전공은 모두 선택으로 되어 있으나 트랙 제도로써 권장 교

과목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필수과목을 두지 않는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과목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법과대에서는 사법고시 과목을, 그리고 의과대에서는 의사고시 과목을 최소한의 필수로 부과하듯이 경영학부에서는 전문가중심 교과과정에서 경영관련 자격시험 과목을 최소한의 필수로 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5) 단일전공의 심화

학부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일전공 학생이 소속 학부에서 부과하는 최소전공인정 학점의 50%-75%의 전공과목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는 대외적인 증명으로서 “심화 과정”으로 인정한다.

전남대 경영학부에서는 전공이수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최소전공인정 학점(33학점)보다 21학점을 초과하면 전공심화 과정으로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전공심화과정 이수’를 명기해 준다. 이는 선택 사항이지 졸업을 위한 필수는 아니다.

6) 복수전공과 부전공

학부제에서는 입학한 모집단위 내의 한 개의 전공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제2, 제3의 전공은 입학한 모집단위 내에서 선택될 수 있고, 또는 밖에서 선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선택된 전공을 복수전공이라 부른다.

교양학점을 30% 비율로 유지하는 경우, 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이라면 교양학점은 42학점이 되고, 전공 및 일반 선택 학점은 98학점이 남게 된다. 여기에 최소전공인정 학점을 1/4인 36학점으로 보면, 복수전공이 가능한 전공의 수는 2.7개(=36학점/98학점)가 된다. 물론 초과이수학점제와 계절학기제를 활용하면 숫자상으로 3개 이상의 복수전공도 가능하다.

주전공과 제2 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 졸업학점이 140학점, 교양학점이 30%, 최저전공인정학점이 1/4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졸업학점 포트폴리오가 구성된다. 이 포트폴리오에서 주전공(제 1전공)을 더욱 심화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26학점의 범위내에서 일정 부분을 주전공 분야에서 더 이수하면 된다. (36학점 + 최대 26학점 = 전공심화 62학점)

졸업학점	교양과목	주전공(제 1전공)	제 2전공	기 타	합 계
140 학점	42	36	36	26	140 학점

학부제에서는 제도적으로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하도록 제반 학사여건을 갖추어 주고 학생의 개인별 능력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나, 제반 학사운영에 제한적 요소가 상존 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칙에 2개 또는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복수전공은 졸업 후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복수전공 이수사실이 기록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사학위(예: 경영학사 학위 등) 중심의 표시방법을 전공 중심으로 표시하려면, 교육부

의 학위등록방법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전공은 타 학부나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일정과목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복수전공과 마찬가지로 역시 졸업 후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부전공 이수사실이 기록된다.

전남대와 아주대는 경영학부제에서 부전공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학생이 입학한 모집단위가 아닌 다른 모집단위의 전공과정에서 소정의 전공학점을 취득하면 (전남대의 경우: 21학점) 부전공 이수가 되며, 부전공을 위한 교과목은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 않다.

7) 복수전공 허용범위

학생들의 복수전공의 허용범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학문계열별, 단과대학별, 학부 내지는 학과별 장벽을 철폐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행 부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상의 허용범위를 준용하여 특수학과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일부만 제한한다.(예: 아주대 - 의과대, 법과대는 제외))

셋째, 복수전공은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동일 단과대학 내의 동일계열에서만 복수전공을 허용해야 한다.

넷째, 동일 단과대학 내의 동일 계열 내의 복수전공도 현실적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동일 학부(학과) 내에서만 복수전공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학부를 대과(大科)의 개념으로 보아 학부내 복수전공 인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8) 학기당 이수학점 수

학과제에서의 현행 학기당 이수학점은 졸업소요학점을 140학점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매학기 18학점, 연간 36학점이다. 다만 전학기 성적평균 B급(80점) 이상인 경우에 매학기 21학점 연간 42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A급(90점) 이상인자는 매학기 24학점, 연간 48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게 보통이다.

그러므로 성적 우수자는 현 제도에서도 첫 학기 18학점, 그 다음 5학기는 24학점씩 이수하면(즉 18학점 + 24학점×5학기 = 138학점), 계절학기에서 2학점만 이수하면 3년만에 조기졸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9) 학생들의 전공 선택 시기

학부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공의 결정에 유연성을 주기 위하여 전공결정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제도(아주대, 전남대)와 1년 내지 2년 후에는 학사관리상 반드시 전공을 선택해야하

는 2가지 제도(서강대-1년 후)가 공존한다.

7. 결론

학부제는 종래의 지나친 학과 세분화에 따른 부작용, 즉 학과간의 장벽에 따른 교수들의 연구의 '칸막이 현상'과 학생들의 편협한 전공 학습의 현장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다.

이 제도가 교육부에 의해서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한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하방 경직적으로 제시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참여자들의 반발을 사온 것은 분명하나(안길상, 1998 참조), 그 제도적 효용성에 대한 시험이 어떤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직 아니다.

경영관련 교육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학부제의 타당성이 있다. 즉 경영학의 통합적 학문의 성격과 환경변화에 따른 특성화 전략의 필요성이 그것들이다.

우선 학부제는 수준 높은 교양교육과 폭넓은 전공교육의 자율적 선택을 통해 학생들에게 복합적 경영문제의 파악과 해결의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서의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시켜 줄 수 있다. 또한 학부제는 학과제에서보다도 덜 구조화되고, 설계하고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유연한 교과과정을 설계할 수 있으므로, 경영관련 교육의 목표와 관련된 특성화 전략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교양중심 모형, 학문연구중심 모형, 관리자중심 모형, 전문가중심 모형의 4가지 대학 모형이 대학원과 연계되는 과정에서도 학부제는 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부제는 대학 자신들의 장기발전 계획에 따른 성장 전략과 개별 학문영역의 특성에 근거한 자구적이며 자율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교육부의 학부제 실시 대학에 대한 일률적 행·재정적 지원은 학부제에 대한 과잉 정당화를 일으켜 오히려 그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혀 유기적 통합이 불가능한 학과들이 행·재정적 지원 때문에 기계적으로만 통합하여 학부를 구성한다거나, 또는 본고에서 제시한 전문가중심 모형으로 성장하려는 대학이나 학과가 교육부의 행·재정적 불이익이 무서워 학부제에 반감제적으로 흡수되는 경우에 과잉 정당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교육조직에 대한 인위적 일률적 지원정책은 항상 지원 기간이 지나면 인습적으로 본래의 조직으로 돌아간다는 오프기 조직(resilient organization)의 원리도 나타날 수 있다.

결국 학부제 정책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학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이나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아니라, 그 실시되는 학부제의 유효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에 달려있다.

현재 국내 대학의 많은 학과들이 대거 학부제로 전환한 현실에서, 우리는 한쪽에서 그

타당성을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기보다는 학부제 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기존 학부제의 유효성 증대를 위한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대교협에서 1996년에 평가 인정한 경영관련 학과들이 소속한 44개 대학에 대한 학부제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부제를 도입한 36개 대학은 경영관련 학과들을 하나의 통합된 학부로 만들고 그 학부 안에 복수 전공을 개설한 13개 대학, 학부는 통합되었으나 단수 전공을 유지한 7개 대학, 학부가 하나로 통합되지는 못했으나 복수 전공이 개설된 11개 대학, 그리고 역시 학부가 하나로 통합되지는 못했으며 단수 전공이 유지된 5개 대학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학부제가 도입되지 않은 8개 대학은 학과제로 남아 있으나 통합된 형태의 5개 대학, 그리고 원래의 세분화된 학과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3개 대학 등 2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앞으로의 경영학부제의 유효성 평가 연구설계에 있어서의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본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검토한 경영학부제 운영상의 선택 대안들은 학부제 프로그램의 유효성 증대를 위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학과통합으로의 정책전환 추진계획”, 1994, 10.
- 교육부, “200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 1999, 5.
- 김형철, “효율적인 학부제 운영 방안”, 『대학교육』, 통권 96호, 1998, 11/12, pp. 62-73.
- 김천기, “학부제에 따른 학과 통폐합 방식의 문제점: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교육』, 1996, 5/6(통권 81호), pp. 102-109.
- 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편), 『두뇌강국 보고서』, 매일경제신문사, 1999.
- 백종현, “학부제의 특징과 현실적 타당성”, 『대학교육』, 1996, 5/6(통권 81호), pp. 96-101.
- 손현덕, 박봉권 역(파이낸셜 타임스 편), 『핵심 경영전략 40가지(Mastering Management)』, 매일경제신문사, 1997.
- 서문호, “이주대의 학부제 도입 실시 사례”, 『대학교육』, 1996, 5/6(통권 81호), pp. 110-117.
- 송계충, “대학 학과의 평가”, 매일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
- 송기철, “한국의 경영학교육 : 회고와 전망”, 한국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 논문집(경영학교육분야), 1987, 2, pp.1-53.
- 신양근, “학부제의 현상과 전망”, 『대학교육』, 1996, 1/2(통권 79호), pp. 17-23.
- 신유근, “한국경영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 논문집(경영학 연구 분야), 1987, 2, pp. 1-13.
- 안길상, “국립대학의 경영혁신 전략”, 『대학교육』, 1998, 9/10(통권 95호), pp. 74-83.
- 오인탁, “학부제의 배경과 의미”, 『대학교육』, 1996, 5/6(통권 81호), pp. 87-95.
- 용세중, “'95 경영·무역·회계 관련학과 평가에 참여하고서”, 『대학교육』, 1996, 1/2(통권 79호), pp. 47-53.
- 유팔무, “학부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 『대학교육』, 1998, 11/12(통권 96호), pp. 30-37.
- 윤형원, “국립대학 구조조정 방향의 모색”, 『교육개혁편람』(충남대학교 간행), 제2호, 1999, pp.7-20.
- 이대선, 강호상, 민재형, 임채운, “고객지향적 대학운영방안”,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1998, pp.119-146.
- 이화형, “IMF시대의 대학개혁”, 『교수협의회보』, 충남대학교 교수협의회 간행, 제15호, 1998, pp. 11-23.
- 이화영, “모집단위의 광역화와 학부제에 대한 이해”, 『교육개혁편람』(충남대학교 간행), 1999, 3(제2호), pp.7-20.
- 임선희, “김영삼 대통령의 교육개혁-그 성격과 과제”, 충남대학교 대학원신문, 1995년 5월 25일자.
-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국공립대학의 구조조정 방향”(기획예산위원회에 보낸 건의문), 1999년 2월 22일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5년도 경영·무역·회계 관련학과 평가종합보고서』, 1995, 12.

황일청, “경영학교육의 과제 : 문제의 재 규정과 그 대책”, 한국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 논문집(경영학교육분야), 1987, 2, pp. 55-80.

Livingston, J. Sterling, “Myth of the Well-educated Manager”,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1971, pp.79-89.

Slocum, Jr., John W., “Tradeoffs : Presidential Speech”, *The Academy of Management Newsletter*, 14(4), Oct. 1984.